

WONIK MAGAZINE

WONIKIN

Vol 45 WINTER
— 4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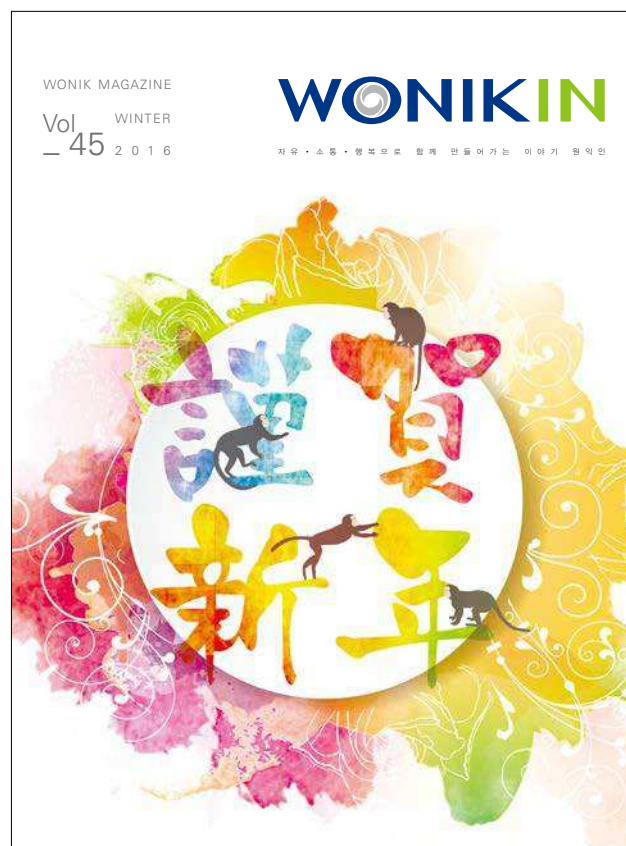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함 께 만 들 어 가 는 이 야 기 원 익 인



謹賀 新年

원익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COVERSTORY



04 **Cover story**
2016년
회장님 신년사

06 **Cover story**
2016년
대표이사 신년사

18 **Wonik News**
원익인
계열사 소식

CONTENTS

WONIK MAGAZINE · 2016 · WINTER · Vol.45

04



COVER STORY

18



06



3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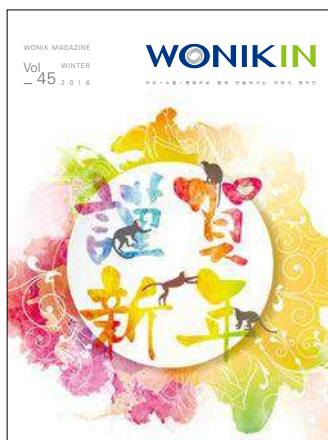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내일을 향한 자유

38



44



COVER STORY

- 04 Cover story**
2016년 회장님 신년사
- 06 Cover story**
2016년 대표이사 신년사
- 18 Wonik News**
원익인 계열사 소식

내일을 향한 자유

- 32 Special Edition**
2015년 원익 송년의 밤
- 38 Special Edition**
2016년 원익 사무식
- 44 Wonik Business**
세미콘 코리아 2016



함께하는 소통

- 50 Wonik Dream Team**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T
- 54 Wonik Business**
(주)원익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 58 Special Edition**
2016 원익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가슴벅찬 행복

- 64 Special Edition**
새해소망, 새해계획
- 70 Zoom in**
(주)테라세미콘
'한마음 명랑운동회'
- 74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 사례 _ 무인양품

LIFE STORY

- 78 Travel**
제주 맛집 여행
- 80 Economy**
2016년 달라지는 제도
- 82 Trend**
2016년 소비 트렌드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메르스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해 주신 원익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원익이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성장사업 발굴과 서비스 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준비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에는 위기가 아니었던 해가 없었으며 매년 어려운 경영 환경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에도 국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최악의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혹자는 IMF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최악의 경영환경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남보다 발 빠르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 항상 대전환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리더십이란 현재의 어려운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뛰어 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도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창조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해 갈 때 우리에게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강력한 체질개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뒤돌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체질 개선과 변화와 혁신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의 핵심역량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사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Ownership’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최고의 성과 달성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건강한 소통으로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뤄지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조직의 다이내믹스를 확보하고 구성원 모두가 주인정신으로 무장해야만 급변하는 환경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책임경영이 실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재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래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창의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직접 찾아 나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의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의 회장 이용한



(주)원익
이창진

원익 가족 여러분

어려웠던 2015년이 지나고 원송이 해인 병신년 2016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항상 새해에는 전년보다는 밝은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국가와 회사, 가정의 행복과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새해 첫날 동해안의 일출을 보며 올 한 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우리의 주변환경은 메르스 및 세계경기 침체로 대변되는 2015년 보다 더욱 어려울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로 대변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 특히 한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사

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패권 다툼, 이에 따른 유가하락 및 중동 시장 위축, 미국을 제외한 유럽 및 일본의 경기 침체, 내부적으로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 북핵 issue 등 년 초부터 여러 악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올 해의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중심으로하는 (주)원익은 2015년 창사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으며 2016년 또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며 가장 어두울 때에 새벽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년 시장환경 및 경제전망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지난 수 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어 낸 저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창의적 LEADERSHIP,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 시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고 정주영회장의 일화를 끝으로 새해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빈대 일화. 젊은 시절,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자로 일하던 때였다고 한다. 그는 매우 가난해서 노동자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피곤하여 잠을 자려고 할 때, 빈대들이 물어뜯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었다. 불을 켜고 빈대들을 잡아보기도 했지만 방안에 있는 빈대들을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긴 나무탁자를 만들어 그 위에서 자려고 했지만 빈대들은 포기하지 않고 상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러나 그 역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세숫대야 같은 그릇 4개를 구해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상다리를 그 그릇 속에 담가 놓았다. 빈대들이 상위로 올라오려면 먼저 물에 빠지게 되므로 더이상 기어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튿날, 편안히 잠을 청하려는 순간, 또다시 빈대들이 몸을 물어 뜯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을 켜고 살펴보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올라가 그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는 생각했다고 한다.

‘이 빈대는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목표를 향한 노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리고 굳게 결심했다고 한다.

‘저 빈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듯이 나도 성공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그 후 현대 그룹을 키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때 겪은 빈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했다고 한다.

우리도 마음속에 빈대 한 마리를 키워

보자. 그리고 그 벼룩처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 보자.



(주)원익큐엔씨
임창빈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 송구영신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수없이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매년 연말을 아쉬움으로 보냈지만, 다시 새롭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기쁨으로 새해를 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원익큐엔씨의 신임 대표이사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병신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느 한해 쉬운 적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이기지 못하고 굴복해 버린 그런 시간도 없

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같이, 회사 업무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기에 그 자체를 즐기면서 새로운 엄중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올 한 해를 우리 원익큐엔씨의 전세계 600명의 임직원과 같이 보내고 함께 나눌 것이기에 오히려 새 것의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은 두렵다!”는 그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올 한해 풍성한 나무 사이를 활기차게 다니며 하고픈 일들을 열정적으로 실행하는 영민한 붉은 원숭이의 삶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아 봅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원익 가족 모두가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뒀습니다.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변함없는 첫발을 내딛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행복·건강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내년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매출 및 수익성은 하락

하고 주력사업의 경쟁력은 정체상태에 놓여있으며, 해외 사업의 역량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제품 및 신시장의 매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해 놓는다는 의미의 ‘교토삼굴(狡兔三窟)’ 고사성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올 불확실성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GEMiNi, NOA 등의 전략제품을 통한 매출확대, 중국 등 신시장 진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근간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만이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R&D 투자효율 극대화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R&D 투자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구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성 높은 연구 관리를 위해, 내부 조직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가 밑받침돼야 합니다. 더불어 마케팅과 연계하여 적기에 개발하고, 개발 적중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발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실경영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변의 시대에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되 전사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Resource 활용을 극대화하고, Risk 관리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열정과 창의가 숨쉬는 조직문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창의의 요체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몰입과 실패의 수용’입니다. 정해진 길로만 가고자 하는 것, 넓고 깨끗하게 닦인 길만을 찾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퇴행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요구하는 정답이 아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몰입과 실패의 수용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간에도 부서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소통을 극대화하고, 제도혁신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우리 원익아이피에스의 미래를 결정지을 Golden time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것인지 혹은 2류 장비회사로 남아 있을 것

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올해를 반드시 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지속성장의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니다.

올 연말에는, 다 함께 모여서 성공을 자축하는 축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임직원 여러분!

먼저 금년 병신년(丙申年)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새 가족이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막중

한 책임감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우리 원익머트리얼즈는 그동안 어려운 외부시황과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하나되어 매년 연평균 33%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여 온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올해에는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바라보는,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함께 노력을 해 오신 두분의 선배 경영인들과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의 소명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고성장을 이룬 특수가스분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인큐베이팅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재분야 전반에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회사와 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 원익머트리얼즈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2공장 증축과 제3공장 신축 등 우리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합니다. 튼튼한 기본기를 갖추고 신발끈을 다시 매는 노력을 함께 합시다. 저는 부임 첫 일정을 오창공장 현장경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연구개발을 위해 열심히 실험하는 모습,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은, 그 동안의 성장 뒤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업종은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 이전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 동안 혹시 구호로만 그쳤거나 작업에 불편함이 있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가 안전관리 재확립 원년의 해 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생활 속의 환경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관리를 넘어서 안전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으로는,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신규 사업 정착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 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도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 추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창조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합

심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추구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성공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조직문화가 필요할 것 입니다.

건강한 소통, 건강한 긴장감,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바로 나와 우리, 여러분 모두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과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시킬 에너지가 꿈틀거림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쏟아 막중한 역할에 책임을 다 하는데 저의 신명을 바치며 대표이사부터 앞장서서 발 벗고 뛰겠습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뒤쳐지지 않고 다 함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가슴 설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더욱 더 확대 발전시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하나하나 구현해 나갑시다.

끝으로 모든 원익머트리얼즈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우리 모두 2016년에도 의미있는 멋진 한 해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또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이재현

신원종합개발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 오신 전임 대표이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신원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는 적지 않은 매출감소와 적자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말 수립한 비전과 사업전략을 토대로 2015년 한해에만 3600억이라는 수주실적과 기존의 자체사업 위주의 시장공략을 벗어나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신탁 물건 공략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의미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신규 수주를 만들어 낸다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2016년 설레는 꿈을 안고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중점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끈끈한 팀웍 다지기'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자기 완결형 마인드 형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의 팀웍은 한층 성숙하게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금년부터 건설경기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불확실성을 미리 감안하여 연초부터 시작되는 분양과 착공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와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낼 수 있는 다각도의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가경쟁력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술부문의 공정별 원가절감 아이템 발굴 및 단계별 절감 포인트 제시, 원가등급제 시행등은 원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무기로 활용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수협력업체 지속 발굴과 다양한 VE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창조적인 공간을 통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의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회사의 가장 기초인 현장이 부실하고 흔들린다면 회사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 관리 수립은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임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신원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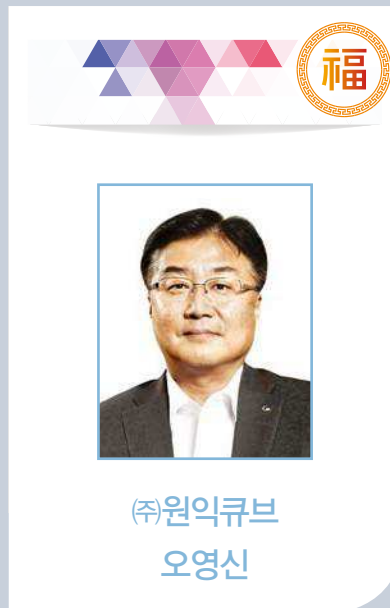
올해 회사는 수주액을 1,650억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건설업계 만큼이나 부침과 격랑이 심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강자에겐 기회가 약자에겐 위협이 될 것이며,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픈 마인드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솔한 열정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거친 풍랑의 바다에 무사항해의 키를 놓지 않는 선장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원익큐브
오영신

친애하는 원익큐브 임직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은 우리에게 여느 해보다 더욱 중요했던 한 해였으며, 그 중요성만큼이나 소중한 성과들을 달성한 해입니다. 비록 목표했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출규모를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나노이닉스의 자회사 절차를 완료하여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미래 신사업 아이템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언제나 경영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왔던 우리였기에, 2015년에도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 자부합니다.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을 뒤로하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찬 다짐으로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최근까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던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2016년은 어떠한 역경이라도 이겨 내고, 기필코 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2016년을 만들기 위해 저는 원익큐브의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 추구하셔야 할 세 가지 가치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해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표현 중 하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입니다. 환골(換骨), 뼈를 갈아 끼우고, 탈태(奪胎), 태를 벗긴다는 의미인 만큼 필히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단어가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는 단어로 쓰이는 이유는, 큰 고통을 이겨내고 얻을 수 있는 변화의 열매가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015년부터 변화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통한 과감한 권한위임으로 현업 실무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체질

및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6년에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이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파격'입니다.

이미 우리가 속해있는 시장은 red ocean이며,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경쟁자로 돌변하는 예측 불가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전략,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Game의 룰을 바꿀 수 있는 파격(破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선, 고객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한계라고 생각했던 목표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고민하고 접근하는 방법 만이, 원익큐브의 지속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신념'입니다.

원익큐브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 성장의 주역은 나와 내 옆의 동료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념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원익큐브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가치는 그저 듣기 좋은

단어의 나열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힘이 단지 관심만 가지고 있는 아흔아홉 사람의 힘을 능가한다.' 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격언처럼, 원익큐브의 모든 임직원 각자가 강력한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걸고 일을 진행 할 때, 우리는 추구하는 목표에 마침내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원익큐브 임직원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파격을 추구하며, 자신과 서로를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필코 2016년이 원익큐브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매출 목표 달성 및 양산 제품 경쟁력 강화, 중화권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중화권 시장 경쟁 및 신제품 개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자 위치에서 전력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경기 둔화등 세계 경제 저성장과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6년은 테라세미콘이 큰 도약을 위해 원익 가족이 된지 3년째로서 한 단계 도약해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도전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 방침 및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핵심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화권 시장 확대해야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는 사상 초유 극소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설비 업체간 경쟁은 생존 게임으로 바뀌어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고비용 원가 구조와 겹쳐져서 수익성이 더욱 하락하고 있

습니다. 과감하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위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불황에서 핵심 경쟁력은 원가와 품질, Speed, 조직문화입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집중하여 공정능력,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디스플레이는 저가형 설비 개발과 운영 효율화, CS 현지화등 비용 절감을 통하여 원가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중화권 확대해야겠습니다.

핵심 공정 설비는 내년도 양산 투자에 대비하여 중화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둘째, 고객 맞춤형 신제품을 적기에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신제품 개발로 신성장 발판이 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신공정 설비를 개발하면서 신기술 축적등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고객 Needs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실과 기술의 높은 벽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핵심인력을 발굴하고 개발 환경을 보완하면서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겠습니다.

올해는 추가된 신공정 포함하여 고객 평가되고 내년도 주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핵심 요소 기술을 선행 개발하여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을 통한 체질 강화 및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겠습니다.

최근 수년이래 최악의 상황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전 부문이 혁신 활동을 전개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 효율화하고 낭비와 비효율이 악 순환되는 것을 제거하여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Project 단계별로 품질, 원가, 납기 원류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일하는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값 싸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남보다 빠르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조직문화 구현

어려운 때일수록 전원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시장 변화, 어떤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적응해가는 진취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로 혁신해가는 빠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문화,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인정받는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테라 문화를 만들어 훌륭한 일터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인재가 기업의 미래인 시대입니다. 인

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대표이사가 솔선수범하겠으며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론적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업무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리더와 상사에 의한 교육과 코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2016년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씨엠에스랩
이진수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말 새롭게 씨엠에스랩의 대표로 취임 후 맞이하는 2016년은 제게 그 어느 해보다 더욱 특별한 해로 다가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갈 설레임과 더불어 씨엠에스랩을 향한 원익 가족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2015년을 돌아보면 화장품 시장은 중국 시장 특수에 힘입어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의 악재로 인해 한동안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연말 이후 Trade Down 현상을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패턴이 늘어나며 중국 관광객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2016년 한 해는 임직원 여러분들과 새롭게 도약해 나갈 씨엠에스랩의 모습을 그리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 중 B2C와 B2B를 포함한 전체 코스메디컬 뷰티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여원으로 추정되나 최근 지속적으로 15%~20%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화장품 시장 내에서 코스메디컬 뷰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씨엠에스랩은 지난 15년 동안 셀퓨전씨 브랜드를 중심으로 코스메디컬 뷰티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기회와 도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씨엠에스랩이 가야 할 길

이 멀기에 우리만의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첫째, 씨엠에스랩의 브랜드별 핵심 경쟁력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셀퓨전씨는 병원 전문성을 갖춘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함으로써 향후 프리미엄 채널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갑니다. 리페라와 스위스킨은 매스 시장에서 각각 고기능성 카테고리 킬러 아이템을 육성하고 매스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브랜드별 핵심 경쟁력 육성을 통해 타겟 고객과 진출 채널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유통 채널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셀퓨전씨는 병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는 에스테틱 시장까지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리페라와 스위스킨은 홈쇼핑 채널과 H&B 채널, 온라인 채널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셋째, 해외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2015년 설립된 중국 상해 법인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규모 있는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면세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기회를 포착하여 매출 증대와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채널 확장을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Consumer Benefit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옴니 채널의 시대, 소비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정보를 접하며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불편해하는지 앞서 파악하고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합시다.

2016년은 우리 씨엠에스랩이 “Global No.1 코스메디컬 뷰티 프론티어”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씨엠에스랩은 그동안 코스메디컬 뷰티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온 것만큼이나 앞으로 도전하고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에 더욱 즐거운 회사입니다. 올 한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올 한해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원익엘앤디 메이플 비치 가족여러분!
지난 한 해는 봄 철 그린불량, 메르스 사태, 가을 장마,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나름대로 선전한 해였습니다.

특히 파트장 중심의 원목을 통해 원익인재상을 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회사, 가치를 창출해서 성장하는 회사, 자아실현을 하는 회사를 원익엘앤디의 중심가치로 정립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여기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IMF보다 더한 최악의 경영환경이 닥쳐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위기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새해는 글로벌수준의 100년 원익기업을 향한 토대를 다지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원익엘앤디는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원익 100년 기업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새해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익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원익이 하면 달라야 합니다.

삼성보다 원익이 하면 더 달라야 합니다. 원익이 하면 고객이 믿고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상품이 아닌 꿈을 팔고 가치를 파는 회사로 인식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주의, 대충주의, 효율성을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는 타성을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배분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미련할 정도로 인내하면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이나 손익에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상품과 최

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가 조직 말단까지 내재화됨은 물론, 서비스와 제도, 시스템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간부들이 더 엄격하고 원칙에 충실하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원목을 통해서 Mutiplier, Ownership 인재육성과 최고지향이라는 원익인재상을 정립했습니다.

이제 원익인재상의 10가지 세부 실천과제를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회사 조직생활은 물론, 우리 개개인 모든 삶의 중심가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서비스 업계의 최고 인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HealTainment Creator라는 원익엘앤디의 비전을 실현하고 원익그룹의 100년 미래 엔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10년 후면 현재의 일자리 중 8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내 일자리는 사라지고 한순간에 사회의 루저가 될 지도 모릅니다.

원익그룹의 미래도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신사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원익엘앤디가 그 미래 엔진이 되

도록 새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엘앤디 가족 여러분!

작년 신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익엘앤디 메이플비치 회사는 여기에 계시는 원익가족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메이플비치의 CEO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이며,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공간이며,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원익엘앤디에서 일한 경력이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회사, 퇴사 후에도 영원히 기억되는 회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새 해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친애하는 임직원가족 여러분!

병신년 진취적인 기상과 적극적인 기운을 가진 원숭이해를 맞아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의 아쉬웠던 지난해를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와 희망찬 다짐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야 할 길목에 왔습니다. 세계경제는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성장둔화, 금융시장의 투자 감소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올해에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직원 일동은 지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역량 강화입니다.

몇 년간 우리 회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던 것은 투자회사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핵심 운용인력을 채용한 만큼 긍정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펀딩 및 딜소싱 능력 제고와 함께 창의적인 투자활

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식경영 실천입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조직내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임직원간 정보공유를 통해 교육체계 실행과 사내지식전파교육, 임직원간 자료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지속적인 지식경영 실천과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조직전체의 문제해결 향상과 업무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통의 벽을 허무는 기업문화의 정착입니다.

안으로는 이제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경영 키워드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임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유연하고 활기찬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듯이 열정이 살아 숨쉬는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임직원이 화합하는 기업문화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익투자파트너스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더욱 뚜렷해지고 도전해 볼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다가오는 비전 2020 달성의 주체가 되



(주)원익투자파트너스
이용성

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립한 원대한 비전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
활기찬 2016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5년은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이 있어 목표를 달성과 함께 전년 대비 20%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서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여 전년 대비 28% 매출 증가와 선제 적인 장비투자로 해외 유명 센서 업체인 Honeywell, Amphenol 등과 신규 센서 Package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일부 아이템은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 했던 압력 센서 설계 기술을 압력센서 개발 전문 업체인 (주) 맨텍의 인수로 부족한 개발 부분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고, 반도체 SMT 비전검사기 등에 필요한 센서 장비 업체인 CyberOptics사와 국내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신년사에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했던 것의 일부가 우리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이것을 성장 발전 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해야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끊임 없이 추구하는 위대한 원익 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환경은 중국의 성장성 둔화, 원유값 하락, 저 성장, 저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도 Honeywell, Amphenol 등 주요 업체의 수주가 현재 전년 대비 25%정도 감소하였고, 연간 예상 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업체의 통보 등 열악한 경제 환경이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더 많은 신규 아이템 개발을 추진하여 매출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노력 한다면 20여년간 어려움을 극복 해 왔던 저력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내고 성장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달성 되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뜨거운 동료애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제 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좋게 변화하는 그런 사람과 조직과 회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원익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주)원익

2016년 신년행사 “다시 하나되는 우리”



2016년 1월 8일 원익의 남한산성 둘레길 걷기 신년행사가 있었다. 이창진 대표이사 취임 하에 “다시 하나되는 우리”를 위한 화합 행사였다. 먼저 AV룸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 및 변경된 규정 소개를 통해 2016년 원익이 나아갈 길을 공유하고 다짐했다.

이어서 남한산성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약 40분의 이동 끝에 도착한 남한산성은 겨울의 멋진 경관을 선사해 주었다. 따뜻한 커피와 핫팩으로 추위를 녹이며 새롭게 변경된 팀원들이 둘레길 제 1코스를 함께 걸으며 화합을 다졌다.

수어장대에서 단체사진을 남긴 후 저녁 회식을 위해 판교 유스페이스로 이동하였다. MC 박종한 과장의 진행 하에 팀별 소개와 신입사원 소개가 이어졌고 모두가 즐거운 퀴즈타임 및 Luck Draw 행사를 진행하였다.

1월 생일자들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끝으로 2016년 도약을 위한 원익의 신년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펜탁스 EPK-i7000 등 첨단내시경 전시



최근 남양주

한양병원에 보급되는 등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각광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익은 제65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펜탁스 EPK-i7000, EPK-i5000 등 첨단 내시경 제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5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개원의 등 의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원익은 펜탁스 EPK-i7000, EPK-i5000 등 첨단 내시경 장비들을 전문의들이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독립부스로 운영했다.

현존하는 내시경 장비 중 가장 첨단 기능으로 각광받는 EPK-i7000은 인천 길병원, 산본원광대병원 등의 종합병원에 이어 최근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인 남양주 한양병원에 납품되는 등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펜탁스 EPK-i7000은 130만 화소의 HD+ 이미지 기술을 적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고, 부가기능도 혁신적이다.

다양한 색 변환기술을 구현한 아이스캔(i-scan) 이미지와 HD+ 내시경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트윈(twin)모드를 장착하여 병변 발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점막 표면의 형태와 혈관패턴을 집중 조명할 수 있도록 내장형 HD+ 비디오 녹화 기능을 적용하였다.

내시경을 통해 확인했던 병변 상태를 똑 같은 선명도의 비디오 화면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의료진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EPK-i7000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EPK-i5000은 전문병원과 건진센터에서 주목받고 있다.

펜탁스 첨단 내시경인 EPK-i시리즈의 컴팩트 모델로 합리적 가격으로 대학병원급 고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EPK-i7000을 도입한 남양주 한양병원 장진혁 이사장은 “펜탁스의 고화질 및 첨단 기능은 물론 철저하고 성실한 AS가 바탕인 펜탁스 하이엔드급 내시경 장비 도입을 계기로 수준 높은 대학병원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남양주 대표병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만치료 ‘뉴뱅퀴시’

미국에서 ‘비수술 최고 바디쉐이핑’ 선정



비접촉, 비수술 방식으로 겨울철에도 간편하게 지방층 제거 각광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익은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간편하게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뉴 밴퀴시’가 미국 의료미용전문지인 ‘뷰티 와이어 매거진’(Beauty Wire Magazine)으로부터 2015년 최고의 비수술 바디쉐이핑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 밴퀴시’를 개발한 ‘BTL 에스테틱’은 미국 10대 에스테틱 회사에 선정되었으며, 피부과 전문의 캐시 리 박사(Dr. Kathy Lee)는 뉴 밴퀴시를 이용하여 ‘비수술 부문 최고의 바디쉐이핑 결과’에 선정되었다. 이번 “2015년 연말 시상”은 에스테틱 및 성형분야의 최고 의사들과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캐시 리 박사의 논문은 지방흡입 수술 후 비대칭 후유증을 겪고 있는 61세 여성을 대상으로 ‘뉴 밴퀴시’를 이용하여 비대칭 부위의 감소와 복부 부위의 둘레 감소에 있어서 해당 환자의 체형에 최적의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뉴 밴퀴시’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전 세계 유일한 비접촉식 RF 의료기기로서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체계적인 몸매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특허 기술은 피부나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면서 지방층에만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환자의 피부에는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둘레감소와 안전성이 증명되어 미국 FDA 승인도 받았다. 의사의 노동력 감소와 환자의 편리성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3년에는 미국레이저학회(ASLMS)로부터 혁신적인 3대 에스테틱 기기에 선정된 바 있다.

뉴 밴퀴시를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술하고 있는 아름다운의원 장동훈원장은 “복부와 옆구리는 물론 운동으로도 쉽게 빠지지 않는 허벅지 등의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살찌는 것을 염려하는 직장여성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시술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익큐엔씨

사내 중국어 교육과정 개설



원익큐엔씨는 지난 11월 사내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대만 자회사 및 중국 시안 공장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어 교육 수요가 높아져 사내에서 중국어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인근 외국어학원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였으며, 매주 화~금 오전 7시부터 50분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업무상 중요도가 높은 10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입문과정을 시행하였고, 지난 1월 15일, 전원 입문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 결과, 출장 등을 제외하고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올해는 입문과정 수료자 10명을 대상으로 다시 기초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추후 교육과정 및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성탄절 맞이 '사랑의 산타' 봉사활동



지난 12월 21일 17시, 원익큐엔씨 주차장에 17명의 산타와 루돌프가 나타났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장애우 가정 아이들을 위해 이형길 회장을 중심으로 나눔회 회원들이 뭉친 것. 사전에 방문가정과 선물을 선정하고 구매하였으며, 산타의상과 소품도 준비했다. 21일 퇴근 후 5개조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총 13가구를 방문하여 18명의 아이들에게 자동차, 로봇, 레고 등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퀵츠제 조본부 생산팀 조태영 기장은 첫 방문 가정에서 만난 아이의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순수한 모습에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할 정도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활동이 끝난 후,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으며 참여한 직원들 또한 매우 뿌듯해하였고, 가족들에게 이벤트를 해주어야 겠다며 산타의상을 빌려가기도 했다. 원익큐엔씨는 대상자와 시행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올 연말에도 사랑의 산타 봉사활동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5년 송년의 밤 개최 !

원익큐엔씨는 지난 12월 23일, 구미코 전시장에서 2015년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 모범사원 및 공로상 수여 및 대표이사 인사말이 있었고, 출장뷔페로 저녁만찬을 즐긴 뒤 MC의 사회로 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흥을 돋우고, 트로트 가수와 코



요태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원익큐엔씨의 패션왕, 동안왕 등을 뽑는 '남다른 어워드' 투표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가습기, 커피메이커,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였다. 2015년은 원익큐엔씨에게 분기 최대 실적 달성 및 연 매출 1,000억 달성 등 의미가 큰 한 해였다. 전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며 따뜻하게 2015년을 마무리하였다.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본부, 매출 1천억 돌파 !



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본부(본부장 김채빈 전무)가 2015년에 사상 첫 매출 1천억원을 돌파했다.

TGS사업본부(이하 TGS)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SDC, SK Hynix, 해외 등 고객층 다양화로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TGS는 2013년 매출 694억에 이어 2014년 894억, 2015년 1016억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기록을 갱신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기존 주요 사업인 가스 공급장치뿐만 아니라 Circulation Purifier, Glove Box, 배관공사 등 신규 사업군의 성장으로 인해 이룬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이에 대해 TGS사업본부장 김채빈 전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년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고맙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및 고객 다각화를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처럼 질주를 멈추지 않는 TGS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도체 설비 신규 모델 개발과 미니어처(Miniature)

현재까지 원익PS의 반도체 설비 판매주력모델은 현재까지 MAHA, AKRA, BLUETAIN 모델이었다.

원익PS에서는 경쟁사와의 기술 차별화 및 미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장비개발을 목표로 작년부터 신규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많은 부서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일까, 마침내 2016년 초 GEMINI, NOA, QUANTA 라는 신규 설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원익PS에서는 신규 설비의 공정 지표 및 성능에 대하여 브로셔와 설명자료를 통하여 그동안 고객에게 신모델을 홍보하였으나, 신규 설비의 형상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실물크기의 1/7로 축소된 설비 미니 미니어처(Miniature)를 제작하였다. 앞으로 고객에게 신규 모델의 미니어처를 직접 보여주며 고객의 생생한 VOC를 청취하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박람회(Semicon Korea, west, japa에 n..etc)에 미니어처 설비를 출품하여 신규 장비 런칭 기회로 삼고자 한다. 반도체 설비 신규 모델들의 승승장구를 기대해본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강한 기업은
강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올 해 부터 전 임직원들의 한 단계 수준 높은 안전 관리를 위해 방화, 방염, 방전이 가능한 소재인 노맥스 재질의 근무복으로 전면 교체하였다. 노맥스 재질은 소방관의 방화복에 쓰이는 소재로 화재, 폭발 등의 안전 사고 발생시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안전 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한 원익머트리얼즈는 춘하추복, 동복 2타입으로 구성된 노맥스 근무복을 전체 임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실천하는 안전, 생활 속의 안전을 통해 안전한 일터가 실현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현덕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만약 그 동안 구호로만 그쳤다가거나 작업에 불편함이 있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가 ‘안전관리 재확립 원년의 해’ 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생활 속의 환경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안전관리를 넘어선 안전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 보자”고 당부하였다.

**OJT 2.0을 위한
‘안전혁신’
‘소통산행’ 실시**

원익머트리얼즈는 사내 현장 전문가 또는 숙련된 직원을 통해 새로 입사한 모든 경력직 또는 초보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조기적응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근무현장 사내입문 교육훈련(OJT)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OJT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안전의식 강화와 동기의를 고취하기 위해, OJT과정의 시작을 ‘안전혁신교육’으로, 과정의 마무리를 ‘소통산행’으로 하는 OJT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일 주일간 진행되는 업그레이드된 OJT 교육을 통해 조기전력화와 기업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주)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 타사 우수현장 방문



신원종합개발은 11월 18일 기술부문 본사 및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타사 우수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대림산업 e편한세상 아현동 주택재개발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시공사례 및 특징점을 살펴보고 당사와 비교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견학은 동종사 우수 시공사례 벤치마킹 및 당사적용을 통해 타사보다 우수한 현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원종합개발 기술부장 장세웅 전무는 “우수건설관리기법 도입을 통해 본사-현장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구축과, 궁극적으로 최소인원으로 현장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 기술부문 동계워크숍 및 개발사업부문 수주 및 분양지원제 산행 개최



신원종합개발은 12월 18일 당일 홍천군 일대에서 기술부문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팀워크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오전 일정으로 홍천군 모곡 유원지 일대 너브내길 3KM 구간 산행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팀별 족구대회, 짬뽕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신원종합개발 장세웅 전무는 “이번 워크숍은 기술부문 전직원이 참가해 팀워크와 협동심을 향상시키며 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통의 자리였으며 임직원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2일 개발사업부문 임직원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광덕산에서 수주 및 분양지원제를 개최했다.

참석한 임직원 모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에도 광덕사 주차장부터 정상까지 약 4시간에 이르는 등반코스를 무사히 완주하였다.

신원종합개발 김일곤 상무는 “작년에 개발사업부문 모두가 하나가 되어 3,000억이 넘는 수주고를 올렸으며, 금번 수주지원제의 기운을 이어받아 2016년 1,500억 수주목표 달성 및 100% 분양율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지원부문은 금년 2월에 동계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원익큐브

원익큐브, 시무식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원익큐브는 자체적으로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A/V Room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첫 순서로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 시상을 진행하였다. 직원들은 서로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본인의 업무에 책임감과 열정을 다짐하였다.

그 다음 순서로는 대표이사의 신년사로 마무리 하였다. 오영신 대표는 센스넘치는 원익큐브 사행시를 직접 구상하여 직원들과 함께 복창하였다.

원 - Wonderful !

익 - Exciting !

큐 - Quick! Quick!

브 - Bravo !!

위 사행시 복창과 함께 시무식은 훈훈한 웃음으로 마무리 되었다.

매 년 진행되는 시무식이지만 직원들 각각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 또는 회사 발전을 위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에너지가 되었다.

(주)테라세미콘

2015년 TERA 가족 송년의 밤



테라세미콘은 지난 12월 18일 오산 웨딩의 전당에서 “2015년 TERA 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한 해 동안 회사를 위해 힘써 준 (주)테라세미콘 전 임직원들과, 옆에서 곳곳이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 깊은 의미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1부 행사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영상 시청 및 대표이사 송년사와 건배 제의의 시간을 갖고,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초청공연(마술쇼&신인걸그룹), 레크레이션 게임, 행운권 추첨 등 한해 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귀가하는 전 직원들과 임원들의 뜨거운 악수인사를 통해 따뜻한 감동의 격려로 훈훈한 마무리를 장식했다.

테라세미콘 상상쉼터 오픈 행사

테라세미콘은 본사 5층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12월 30일 '상상쉼터' 오픈 행사를 실시 하였다. 상상쉼터는 휴식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부서간 아이디어 회의 및 담화를 나누고, 안마기를 활용한 활력 충전의 공간으로 탈바꿈 하여, 임직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적극적인 직원들의 모습, 테라세미콘의 미래



이날 테라세미콘 신현보 상무는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모처럼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저 역시 경기에 참여해 열심히 뛰었고, 우승도 하게 돼 기쁘다”며 “바쁜 업무로 인해 모두 함께 이런 시간을 즐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운동회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제조파트 오승진 대리 역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곳은 낯씨가 이십긴 했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다. 특히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아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끝으로 이재경 대표이사는 “1년에 두 번, 산행과 운동회를 통해 테라세미콘의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떤 행사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테라세미콘의 조직문화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앞으로도 테라세미콘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큰 역할을 할거라 기대한다. 오늘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씨엠에스랩

씨엠에스랩 대표이사 취임식

12월 7일에 새로운 대표이사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씨엠에스랩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는 씨엠에스랩 직원들의 마음을 대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씨엠에스랩을 위해 고생해주셨던 이재현 실장님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대표이사님께서 취



임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활력 넘치는 인사로 씨엠에스랩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재현 실장님께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이진수 대표이사님께는 상서로운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취임식 후에 각 부서별로 대표이사님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6년 씨엠에스랩이 이진수 대표이사님과 함께 하나로 뭉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wine & talk 파티



지난 12월 22일, 본사 2층 비즈 라운지에서 씨엠에스랩 WINE& TALK 파티가 열렸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임직원 간 소통의 장을 가지기 위한 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잘 차려져 있었고 촛불과 꽃이 더해져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칸에는 맛있는 와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2층으로 내려온 직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며 그 동안 이야기를 못 나눴던 분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2015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웃음 가득하게 파티를 마무리 했습니다.

리페라 원더에이징 스킨케어 4종 등 신제품 출시

씨엠에스랩 리페라는 1월, 탄탄한 기초 케어를 위한 '토탈 원더에이징 스킨케어 4종 세트'를 포함해 스페셜 케어를 위한 '3 STEP 마스크 컬렉션',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줄여주는 '올인원 에센스와 고농축 하이드로겔 '메시지 마스크'를 출시했다.

토너-에멀전-에센스-크림으로 구성된 원더에이징 스킨케어 4종은 전문적인 에이징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피부관리의 가장 핵심인 보습과 탄력에 초점을 맞추어, 피부 장벽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수분 밸런싱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기초 케어 후, 오일이 함유된 에센스를 통해 강화된 피부 장벽에 막을 씌워주며 피부 속 수분량을 높여 속 땅김 현상을 원천봉쇄하고 쫘



득한 질감의 고농축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면 완벽하게 강화된 보습과 탄력 케어를 경험할 수 있다.

‘토탈 원더에이징 스킨케어 4종 세트’는 겨울철 악건성과 피부 탄력저하로 고민하는 여성, 피부에 그 어떤 것을 발라도 피부 겉과 속의 고질적인 땅김이 심했던 여성들에게 피부의 근본적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컬렉션이다. 살롱에서 받는 관리를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3 STEP 마스크 컬렉션은 손-발-얼굴 케어를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페이스 마스크, 핸드 마스크, 풋 마스크 등 총 3종으로 구성된 실속형 팩이다. 얼굴 뿐만 아니라 진짜 나이를 보여주는 손과 발까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누드 실루엣 페이스 마스크는 수분과 보습케어는 물론 탄력 강화와 주름 개선 효과까지 더해 흐트러진 페이스라인을 정돈해준다.

올인원 에센스는 스킨의 산뜻함, 로션의 부드러움, 에센스의 영양이 하나로 결합된 멀티 올인원 집중 케어 제품이다. 휴대 가능한 미니사이즈 파우치에 화장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화장솜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해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줄여주는 똑똑한 뷰티 아이템이다. 국내 최초 메시지 프린팅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인 메시지 마스크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총 10종의 메시지가 담겨진 마스크팩이다. 고농축 하이드로겔 소재로 되어 있어 피부에 밀착되어 풍성한 수분과 함께 탄력 및 영양 성분이 투명한 피부를 선사해준다.

리페라의 신제품은 리페라 사이트(www.repaira.co.kr)에서 만날 수 있다.

스위스킨 발효 안티에이징 라인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리뉴얼 출시

씨엠에스랩(CMS LAB)의 피부 과학에서 탄생된 피부 맞춤 코스메디컬 브랜드 ‘스위스킨(suiskin)’이 지난 18일 대표적인 발효 안티에이징 라인인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라인’ 제품 3종을 새롭게 리뉴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미네랄 오일이나 벤조페논, 인공향료, 합성색소 등 無 첨가 처방으로 저 자극이면서 동시에 전 제품 피부 안전성 테스트 완료된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종 중 파나시아 제품은 포스파티딜세린, 레시틴, 세라마이드3, 스테아릭애씨드, 스쿠알란 등으로 구성된 CMS™ 특허 성분이 함유돼 외부 환경으로 인해 무너진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어 피부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제품은 크게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파나시아, 모이스춰, 크림으로 구성됐다.

가장 첫 단계에 사용하는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파나시아’는 고농축 발효 스킨



에센스 타입. 기존 현탁한 우윳빛 제형에서 투명하고 산뜻한 워터 에센스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어 한층 더 촉촉한 보습감과 함께 가볍고 끈적임 없는 뛰어난 흡수력을 제공한다. 은은한 라벤더 오일로 자연의 향을 선사할 뿐 아니라, 3가지 발효 추출물과 CMS™ 특허 성분, 9가지 이상의 식물 성분이 함유돼있어 풍부한 영양 공급과 피부 장벽 강화는 물론 주름 개선 기능, 수분 및 진정 효과를 자랑한다.

그 다음으로는 발효 에멀전 타입의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모이스춰’ 제품. 기존 대비 낮은 점도로 좀 더 산뜻한 사용 감을 제공하면서 고농축 발효 성분과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 한층 촉촉한 피부로 바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2의 물’이라고 불리는 우레아 성분이 천연 보습성분(NMF)으로 피부의 수분 함량을 향상시키고, 피부 표면의 방어 기능에 도움을 주어 수분 손실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발효 성분들이 피부 사이 사이에 촘촘히 침투해 수분 밀도를 높여 한층 더 빠르고 깊은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는다.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크림’으로 영양감이 느껴지는 쫄쫄한 사용 감을 자랑하는 발효 성분과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 고영양 발효 크림. 풍부한 영양 감의 크림 텍스처로 진정, 보습에 효과적인 비타민B5(판테놀) 성분이 함유돼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녹듯이 흡수되면서 깊은 보습감을 부여하고 피부 속부터 차오른 듯 윤택한 피부를 선사한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킨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는 “기존 대피 한층 고급스러워진 용기와 디자인 룩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발효 안티에이징 기능을 한층 강화시킨 점이 포인트.”라며 “20대 중반부터 중 장년층까지 건성 및 약 건성 피부와 노화 피부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리뉴얼 제품은 스위스킨 홈페이지(<http://www.suiskin.co.kr/>)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원익투자파트너스

가족행사 진행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지난 12월 18일 2015년 마지막 기업문화활동인 가족행사를 진행하였다.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연말가족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날 행사는 다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뮤지컬 오케피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가장 높은 참가율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에 바쁜 업무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임직원들에게는 뜻깊은 선

물이 되고 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2016년에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 본부별 체육대회 진행



원익투자파트너스는 2015년 10월 23일 신규 입사 직원과 기존 직원의 소통을 위한 본부별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팀웍을 다지기 위하여 벤처투자본부팀과 기업투자본부, 기획관리본부의 연합 팀 두 팀으로 나누어 족구와 풋살 경기를 진행하였다. 선선해진 날씨에 함께 운동하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리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체육대회의 여운을 즐기며,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이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며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임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소모임, FUNDAY행사 개최



원익투자파트너스는 2015년 11월 26일 2015년도 소모임과 FUNDAY 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사는 분기별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소모임은 볼링경기로 진행하였다. 각 팀의 열띤 응원과 함성 속에 볼링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볼링 게임이 끝난 후에는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시상식과 함께 FUN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의 FUNDAY 행사는 2015년 마지막 FUNDAY 행사이며 올해의 우수사원이 선정되는 자리이기도 하여 더욱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다.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축하하며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임직원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기업 문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2

Special Edition

2015년 원익 송년의 밤



38

Special Edition

2016년 원익 사무식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내일을 향한
자유



44

Wonik Business

세미콘 코리아 2016

신뢰(信賴)와 함께하는 동행(同行)!



기업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원익의 2015년 마지막 밤은 원익의 기업 문화처럼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을 시간으로 꾸며졌다. 흔히 '종무식'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 맛있는 음식들과 와인,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한 행복하고 따뜻한 자리 마련됐다.





Adieu 2015



와인과 음악이 함께한 원익의 PARTY! 드레스코드는 블랙 & 레드

원익은 지난 2015년 12월30일 오후 5시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2015 원익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2015 원익 송년의 밤'에는 원익 빌딩에서 근무중인 전 임직원들을 비롯해 각 계열사 사장단 및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열린 '원익 송년의 밤'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의 종무식을 겸한 행사로, 원익빌딩 1층 로비에는 화려한 풍선 장식은 물론이고 얼음조각상 'Dragon Horse'가 멋진 자태를 뽐내며 연말 파티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특히 얼음조각상 'Dragon Horse'는 성장을 의미하는 말과 세상을 호령하는 용을 합쳐 무한성장을 통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익을 의미하는 조각상으로, 2015년을 멋지게 마무리 하고, 2016년을 힘차게 맞이하는 원익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또한 각 대륙



의 다양한 와인들과 음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와 뷔페 음식까지, 파티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연말 파티답게 이번 '2015 원익 송년의 밤'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 & 레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드레스코드인 블랙 컬러와 레드 컬러를 매치하는 패션 센스를 뽐냈고, 또 남성 직원들에게는 블랙 & 레드 보타이를, 여성 직원에게는 손목 코사지를 증정해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다양한 이벤트로 파티 분위기 UP !

MC 김지환의 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2015 원익 송년의 밤'은 다양한 이벤트로 한 해 동안 원익의 성장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2016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었다.

전문 캘리그래피 작가가 예쁜 손글씨로 직원들의 이름, 새해 소망, 좌우명, 각오 등을 써주는 이벤트가 진행됐고, 다양한 문구의 리본을 명찰에 부착해 자신을 알리고 동시에 문구를 주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Letter Ribbon', 마술사가 직접 테이블로 찾아가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를 선보이는 'Standing Magic' 등의 이벤트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소



New Year 20



망명찰' 이벤트를 통해 원익 임직원들은 “언제나 행복”, “부자 되세요”, “술로 탈출”,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원익 베테랑!”, “2016년 금연 성공”, “신뢰의 2016”, “몸짱으로 거듭나자” 등의 소망과 다부진 각오를 적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멋진 바텐더의 화려한 칵테일쇼, 따뜻한 난로에서 익어가는 군고구마와 군밤을 즐기며 동료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 행사 내내 원익빌딩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원익 송년의 밤’을 빛냈는데, 8인조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앙상블 공연팀인 ‘아르스 노바 첼로 앙상블’ 팀의 공연이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을 시간에 함께했고, 팝페라 가수 채송화, 8인조 성악 공연 등이 이어졌다.



**희망찬 2016 !
함께해요 원익 !**

이번 ‘2015 원익 송년의 밤’의 마지막은 베스트 드레서 시상과 행운볼 추첨으로 직원들에



16



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날 드레스코드가 블랙 & 레드였던 만큼, 참석자들의 추천과 합성으로 드레스코드에 맞게 패션센스를 뽐낸 직원 및 가족을 선정, 백화점 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됐고, 행운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주)씨엠에스랩의 화장품, 클래식 자전거, 갤럭시 기어2, 애플워치, 아이패드 에어2, 노트북, 제주 호텔신라 2박, 2인 푸켓 패키지 항공권 등 통 큰 경품이 제공됐다.

이날 여성 베스트 드레서로 뽑힌 (주)원익큐엔씨 정우현 부사장의 부인 김경희 씨는 “원익의 2015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돼 기쁨이 배가 된 것 같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발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원익의 2016년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원익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 원익 송년의 밤’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끝으로 원익 전 임직원들은 “희망찬 2016! 함께해요 원익!”을 다함께 외치면서 2015년을 원익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마무리했다.

성공을 다짐하는 힘찬 출발 !

원익,

열정과 희망의 2016년

丙申年 새 해를 맞이하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지난 연말부터 욕설과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발음하기 민망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SNS상에서는 각종 패러디가 넘쳐나기도 했지만, '병신년(丙申年)', 즉 '붉은 원숭이의 해'는 성공과 강인한 생명력 등 기운이 번창함을 의미한다. 또 원숭이는 피가 많고 재능이 많은 것을 의미, '뛰어난 재능으로 성공하는 한 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개최된 '2016 원익 시무식'에 참석한 원익 임직원들은 병신년(丙申年)이 가진 의미처럼 "재능과 열정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겠다"는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2016년 힘찬 출발을 알렸다.

원익 전 계열사 임원 및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시무식은 2015년 원익인상 시상식 및 2016년도 임원 사령장 수여식, 원익 이용한 회장의 신년사 및 원익 대졸공채 2기 신입사원 소개 및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2015년 원익인상 시상식, 임직원들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



먼저, ‘2015년 원익인상’은 각 계열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세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4개 부문에 걸쳐 추천 받아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및 기술개발 부문, 생산 부문, 영업마케팅 부문, 관리혁신 부문에 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생산부문을 제외한 총 4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5년 원익인상’ 대상에는 (주)원익머트리얼즈 기술팀 강신영 과장과 박채모 과장이 ‘초고순도 N2O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 Global No.1 공법 적용과 신규 N2O 1,500ton/년 공장 국산화를 통한 원가 절감 달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T 박종오 부장 외 12명이 양산 TEOS 및 ARC CIP 성능 향상과 차세대 PE-CVD(GEMINI) 설비를 개발한 공적으로 기술개발 부문상을 수상했다.

또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팀 고인성 부장이 2015년 TGS본부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실현과 신제품 런칭 및 점유율 확대, 신규시장(SK하이닉스 M14-Pjt) 진입 및 매출(103억원), 주요 고객사 M/S 확대(삼성 50%, SK하이닉스 20%, SDC100%)로 영업마케팅 부문상을 수상했고, (주)원익큐엔씨 환경안전팀 시설파트 정하규 대리가 2015년도 연간 약 2억원 에너지 절감 달성, 설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2015년 전기안전 유공자 표창 수상, 퀵스사업장 최대한제인 공장 확장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 외부업체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회사 손실 보전 등의 공적으로 관리혁신 부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처럼 지난해 뛰어난 창의성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일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올린 ‘2015 원익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2016년 신규 임원 및 승진 임원 사령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위닉스 장홍식 사장, (주)원익엘앤디 이재천 사장, (주)원익큐엔씨 임창빈 사장이 2016년 1월1일부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고, (주)원익머트리얼즈 박



창열 전무, (주)위닉스 최종탁 전무,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태규 전무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 각각 승진임원 사령장을 수여 받았다.

또 2016년 신규 임원에는 (주)원익아이피에스 김성훈 상무, 양호식 상무, (주)테라세미콘 위광희 상무, (주)원익머트리얼즈 김국재 상무, (주)원익 유호봉 상무, (주)원익큐엔씨 권순형 상무, (주)테라세미콘 이태완 상무, (주)원익큐브 이규석 상무, 오재성 상무가 임원 사령장을 수여 받았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원익 대졸 신입사원 공채 2기’에 대한 소개 및 인사가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대졸 신입사원 공채2기에는 총 4,380명이 지원했으며, 총 35명이 최종 합격해 2016년 새롭게 원익 가족이 되었다. 이들은 시무식을 시작으로 2주간 강릉 메이플비치에서 2주간의 합숙교육으로 신입사원 입문 과정에 들어갔다.



**창조적 리더십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재 발굴 및 육성으로
젊고 창의적인 미래개척!**

변화와 성장,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큰 내일을 위한
경쟁력 준비!



2015년 원익인상 시상식 및 2016년도 임원 사령장 수여식에 이어, 원익 이용한 회장의 신년사가 있었다. 갑작스런 일정으로 시무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용한 회장을 대신해 이문용 부회장이 대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용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먼저,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해주신 원익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원익 가족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난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원익이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성장사업 발굴과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한 기초를 튼튼하게 준비한 한 해 였다고 자부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매년 어려운 경영 환경이 반복되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항상 대전환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





해 '창조적 리더십'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자발적인 오너십',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용한 회장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적극적인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체질개선과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경쟁력 준비를 철저히 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임직원 모두 자발적인 오너십을 가지고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하며, 젊고 창의적인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원익은 2016년에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성장,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2016년도 임원인사 명단

사장 승진



(주)위닉스
장흥식



(주)원익엘앤디
이재천



(주)원익큐엔씨
임창빈

전무 승진



(주)원익머트리얼즈
박창열



(주)위닉스
최종택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태규

상무 승진



(주)원익아이피에스
김성훈



(주)원익아이피에스
양호식



(주)테라세미콘
위광희



(주)원익머트리얼즈
김국재



(주)원익
유호봉



(주)원익큐엔씨
권순형

임원 직급 이행 (상무)



(주)테라세미콘
이태완



(주)원익큐브
이규석



(주)원익큐브
오재성

2015년 원익인상 수상자 명단



대상
(주)원익머트리얼즈
강신영 과장
박재모 과장



강신영 과장



박재모 과장



기술
개발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T
(박종오 부장 외 12명)



영업
마케팅
(주)원익아이피에스
고인성 부장



고인성 부장



관리
혁신
(주)원익큐엔씨
정하규 대리



정하규 대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반도체 제조기술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16'(SEMICON Korea 2016)가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1987년 시작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세미콘 코리아'는 '미래와 시장, 기술, 사람과의 연결(Connect to the Future, People, Market and Technology)'을 주제로, 전세계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을 선도하는 20개국, 총 54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천870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원익, 세미콘코리아서 세계적인 기술력 홍보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16'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 부품, 소재 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 것은 물론, 시장정보 제공,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40여 개사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기간 동안 총 4만여 명의 반도체 분야 종사자들이 전 시장을 찾았다.



원익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 (주)테라세미콘, (주)위닉스 등 총 5개 계열사가 참여해 활발한 홍보의 장을 열었다. 전시장 입구 쪽에 위치한 원익의 부스는 (주)원익큐엔씨와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위닉스가 함께 마련한 부스와 (주)원익아이피에스와 (주)테라세미콘이 함께한 부스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원익의 상징인 블루와 화이트 컬러로 꾸며진 원익의 부스는 원익의 높아진 위상만큼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1, 2층으로 나뉘어진 여러 개의 독립된 미팅룸을 마련, 고객들을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전시회 첫 날에는 원익 이문용 부회장과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대표이사, (주)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주)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대표이사 등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고객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자리를 빛냈다.

최신 기술과 제품 선보인 원익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이번 전시에서 GEMiNi ALD, GEMiNi-CVD와 메탈 공정의 NOA(CVD W, ALD W, CVD Ti/Tin) 등 신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사업1팀 서상호 부장은 “새롭게 개발한 신제품들은 올해 삼성 연구소와 양산라인에 공동개발기, 공동평가기로 들어가 검증은 거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nect
to the Future,
People,
Market and Technology

(주)테라세미콘은 기존 장비인 TERA300SE의 생산성과 공정능력을 높인 신모델 TERA300SP를 소개하고, ALD 신공정 개발 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에서 삼성의 신규라인 엔지니어들에게 신공정 설비에 대해 소개하고, 또한 SK하이닉스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는 반도체 시장이 작년보다 어려운 환경이 될 거라 예상되는 만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화권 마켓쉐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원익큐엔씨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쿼츠 웨어 및 세라믹 제품과 LCD 패널 제조공정 중 세정공정에 사용하는 장비에 적용한 비접촉식 엑시머 램프의 기술력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주)원익큐엔씨는 기존의 쿼츠 웨어 부문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보다 더 안정화되는 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또한 세라믹 분야와 관련해 (주)원익큐엔씨 정우현 부사장은 “올해는 소재 저항을 조절해서 소재가 쓰일 수 있는 분야를 넓혀나가고, 가공의 정밀도를 더 높여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국산화 하는 작업, 기존의 다른 소재가 적용되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개발한 소재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중국 쪽에 LCD, OLED 파트 분야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시장에 이어 전구체 시장에 본격 진입을 알린 (주)원익머트리얼즈는 현재 충북오창의 본사 및 제1공장, 세종시 전의면 제2공장에 이어 오창 신규부지에 프리커서 합성 및 증착 연구와 가스 연구를 위한 R&D센터와 HCDS 합성-정제를 수행하는 공장동을 건립중에 있다. 특히 전의 제2공장 부지에 연간 7만5000BT 생산능력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엑시머레이저 제조시설을 갖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라인에 공급할 계획이며, 오창 신규부지가 완공되면 HCDS를 비롯한 전구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콘 코리아 2016’에는 (주)위닉스도 참가했다. (주)위닉스 국내영업팀 김원병 부장은 “지난해 CyberOptics와 계약을 맺었는데, 기존 CyberOptics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에 꾸준하게 납품을 해온 반도체 계측기를 판매하기 위해 이번 전시에 참가하게 됐다”면서 “새롭게 개발한 신제품도 홍보하고, 또 이번 전시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수요를 조사해 CyberOptics에 제공, 함께 공동 개발 작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콘 코리아 2016’에서는 시놉시스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우디 등에서 초청된 연사들이 ‘혁신,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반도체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조 연설에 나섰으며, 이외에도 노광, CMP, 일렉트로패키지를 포함한 반도체 공정 과정의 최신 기술 추세에 관해 논의하는 ‘SEMI 기술심포지움’, 국내 반도체, LED, FPD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SEMI 국제표준회의’, 전시 참가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Wonik Dream Team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T



Wonik Business

(주)원익,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Special Edition

2016 원익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원 익 인 의 진 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함 께 하 는
소 통



World Best No.1을 꿈꾼다

2015년 원익인상 기술개발 부문상을 수상한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팀. 지난해 2월 발족한 MP Plus TF팀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양산 TEOS 및 ARC CIP 성능 향상, 차세대 PE-CVD(GEMINI) 설비 개발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보다 올해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이들은 2016년 World Best No.1을 기대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MP Plus TF팀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팀은 지난해 (주)원익아이피에스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PE-CVD 부문에서 경쟁사에 기존의 시장을 빼앗기면서 꾸려진 팀이다. 김민 상무를 주축으로 하드웨어 총괄 담당 박종오 부장과 공정 총괄 담당 공철민 부장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구성된 MP Plus TF팀은 대부분이 과장급 이상의 조직으로, (주)원익아이피에스 각 분야의 브레인인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P Plus TF팀은 지난 한 해 동안 'World Best No.1 장비 개발'을 목표로 불철주야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양산 TEOS 및 ARC CIP 성능 향상과 차세대 PE-CVD(GEMINI) 설비 개발이라는 성과를 이루며, (주)원익아이피에스 PE-CVD 장비가 세계 최고의 장비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았다.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팀 박종오 부장은 “지난해 경쟁사 어플라이드가 신제품 런칭을 하면서 기존의 시장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어 결성된 팀이 MP Plus TF팀이다. 1년 동안 연구와 노력으로 양산 TEOS 및 ARC CIP 개선 뿐 아니라 신규 설비를 개발해냈고, 특히 균일도 부분에 있어서는 0.3% 수준까지 나왔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1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팀원 모두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시작을 알렸고, 지금부터는 전쟁터에 입성해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만큼, 올 한 해도 MP Plus TF팀은 다부진 각오로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철민 부장은 “올해는 특히 중요한 업무가 남



아있다. 올 연말 평택에 삼성 신규라인이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 개발한 장비와 경쟁사의 신규 런칭 장비가 비교 평가를 받게 된다”며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신규 장비를 런칭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익아이피에스의 ‘드림팀’ !

MP Plus TF팀은 말 그대로 ‘드림팀’(Dream Team)이다.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원익아이피에스의 브레인들만 모아 놓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 그렇기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주장이 강하다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는 등 어려운 점도 있었을 터. 박종오 부장은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MP Plus TF팀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다른 시각에서 하나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힘들기도 하다. 그래서 늘 우리 팀의 미팅은 ‘끝장 토론’ 형식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임석규 과장은 “처음 MP Plus TF팀을 시작하면서 각자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이다 보니, 기존의 업무 방식과 많이 달랐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지금은 팀워크도 더욱 향상되고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열 과장 역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1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야 우리집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종오, 공철민 부장님이 계시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하린 과장은 “90%가 과장급 이상의 조직이기 때문에 고참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고 말





했고, 한상현 과장은 “그런 문제로 다른 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등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업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제부터가 시작, 2016년이 기대된다”

MP Plus TF팀은 2015년 보다 올해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공철민 부장은 “지난해에는 TEOS 및 ARC CIP 개선 활동과 신규장비를 개발했다면, 올해는 이를 런칭시켜서 Qual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드시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올 연말 평택 삼성 신규라인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두호 과장은 “MP Plus TF팀이 1년 연장 되었는데, 지금까지 신규 설비를 만드는 도입부였다면 이제는 이 설비를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고, 김선일 과장은 “지난해 업무는 물론, 개인적으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큰 산을 넘었고, 현재는 육아라는 더 큰 산을 넘고 있다.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앞으로 1년 더 MP Plus TF팀이 유지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또 최정훈 과장은 “MP Plus TF팀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배우는 것이 많다. 회사 올 맛이 난다”면서 “2016년도 분골쇄신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MP Plus TF팀은 ‘2015년 원익인상 기술개발상’을 수상한 이후 아직까지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지 못했다. 원익인상 수상 외에도 2015년 삼성전자 협력사 혁신 우수사례 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 박종오 부장은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협력사 평가 관련 ‘대상’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며 “원익인상 수상과 삼성협력사 우수사례 대상에 대한 상금으로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초대해 감사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지난 1년 동안 일을 진행하면서 어느새 모두 ‘멀티 엔지니어’가 되어 있다는 MP Plus TF팀. 2015년에 이어 2016년 더욱 눈부신 성과로 World Best No.1을 만들어갈 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이노젝터’ 해외 보급에 역량 집중

㈜원익이 ㈜에스트라와 피부과병원 시술용 의료기기인 ‘이노젝터’의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노젝터’의 해외 수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원익은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 해외 의료진과 마케팅-서비스 팀을 초청해 이틀간 ‘이노젝터’ 교육 및 시술 참관, 영업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의료진 및 바이어 초청
교육 및 시술 참관, 영업현안 등 논의



지난해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된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는 중국과 태국, 홍콩의 의사와 현지 마케팅 및 서비스팀이 참석했다.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지난해 여름,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계열사인 (주)에스트라와 피부과병원 시술용 의료기기인 이노젝터의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주)원익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해외 의료진은 원익 본사와 중앙대학교병원, 예미원피부과에서 ‘이노젝터’ 시술 참관 및 임상교육을 받았으며, 현지 마케팅 및 서비스팀은 원익 본사에서 마케팅과 서비스 교육을 받고, 영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연구소를 방문, 이노젝터의 R&D 과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먼저, 11월9일 오후 2시 원익 본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주)원익의 회사 소개 및 연혁, ‘이노젝터’의 개발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해외 의료진과 바이어들에게 피부미용 의료가기 시장의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한 (주)원익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이노젝터’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이노젝터'를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





상을 시청하는 등 ‘이노젝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마주름과 여드름 흉터, 목주름, 리프팅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노젝터’의 시술 동영상 통해 참가자들은 시술 전과 시술 과정, 시술 후 효과를 직접 보고 이해하고, (주)원익 이창진 전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날 진행된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가 직접 참석해 ‘이노젝터’의 매커니즘 및 피부과적 활용을 주제로 임상 발표 및 라이브 시술을 진행하였다. 그는 볼과 목주름이 고민인 58세

여성의 시술 사례와 여드름흉터 환자의 시술 사례에 대한 소개에 이어 직접 현장에서 이마주름과 여드름흉터로 고민인 두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라이브 시술을 진행하면서 ‘이노젝터’의 작동법과 시술 프로토콜을 선보였다.

혁신적인 의료기기

‘이노젝터’, 해외 보급 기대

‘이노젝터’는 희오리 공기압에 의한 물리적 자극을 통해 피부 진피층의 자가생성을 촉진시키는 원리를 적용한 기기로,

대한피부과의사회 학술대회 등의 국내 학회는 물론 ICAD2015 등 해외 학회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관심을 받으며 핫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이노젝터’는 피부 속



퍼짐성이 우수하고 주입액 손실율과 통증 및 출혈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여타 레이저나 고주파 시술처럼 시술 시 발생하는 열손상이 없고 재생효과가 탁월해 주름, 흉터, 리프팅 치료 등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2015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되어 혁신성과 효용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주)원익 이창진 전무는 “이번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해외 의료진과 해외 파트너들이 이노젝터의 보급과 확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마련했다”면서 “이노젝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환자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피부과 의료기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원익은 이번 ‘이노젝터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진



행에 이어 향후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유명 학회에도 참가하여 이노젝터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해외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글 윤보라 • 사진 김동관





“원익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

원익그룹
신입사원 공채2기
입문교육 실시



원익이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1기에 이어 2016년도 공채2기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지난 1월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강릉 메이플비치에서 진행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대졸 신입사원 공채2기에는 총 4,380명이 지원했으며, 총 35명이 최종 합격했다. 2016년 원익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사원 공채2기는 1월4일 시무식 참석을 시작으로, 연수원으로 이동해 총 2주간의 합숙 입문교육을 받았다.

“원익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

원익 공채2기 신입사원 35명은 1월4일 판교 원익빌딩에서 진행된 시무식에 참석해 전 계열사 임직원들 앞에서 첫 인사를 한 뒤, 강릉 메이플비치로 이동해 2주간의 합숙 입문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2016 원익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 1주차에는 원익그룹의 과거, 현재, 미래와 기업문화와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Hello WONIK’을 비롯해 원익 계열사 상세소개, 신뢰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신뢰 포스터 만들기, 신뢰문화 증진 워크샵, 소셜스타일 식별 및 효과적 소통기법,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 특강, 도전! 원익 골든벨 등의 과정이 진행됐다.

이어 교육 2주차에는 회복탄력성과 자존감 증진, Biz. Writing, Biz.Presentation 실행력 강화, 창의력 향상 과정 등 핵심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위한 과정들을 비롯해 원익의 각 계열사에서 온 지도선배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모의경영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합숙 입문교육의 공식적인 과정이 마무리되는 15일에는 원익 이용환 회장이 직접 방문해 ‘신입사원의 역할’에 대한 특강으로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신입사원들이 합숙 기간 중 준비한 ‘모의경영 프로젝트’ 발표와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퍼포먼스 발표가 이어졌다.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인 ‘모의경영 프로젝트’

이날 오후 진행된 ‘모의경영 프로젝트’ 발표회는 총 다섯 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신입사원들이 (주)원익큐엔씨, (주)원익아이피에스, (주)테라세미콘,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



익큐브 등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계열사의 성장을 위한 전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도 선배들과 합숙 교육기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조는 (주)원익큐엔씨가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천적 경영전략을 주제로, 2조는 (주)원익아이피에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선제적 솔루션, 3조는 (주)테라세미콘의 생존을 위한 원가절감 및 효율화 방안, 4조는 (주)원익머트리얼즈의 프리커서 신규사업 진출, 5조는 (주)원익큐브 신사업 창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원익큐엔씨에 대해 발표한 1조 조장을 맡은 심요엘 사원은 “이번 모의경영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주)원익큐엔씨의 현황을 분석하고 매출액, 수출 비중 등에 대해 조사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조원들 모두 각자 전공이 달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전공에 맞게 잘 분담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잘 진행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주)원익머트리얼즈에 대해 발표한 4조 신재인 사원은 “프리커서 신사업 진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프리커서





아이템 중 새로운 아이টে을 선정해 중국시장 진출 전략까지 세웠다”면서 “지도 선배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무 힘든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도움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원익큐브에 대해 발표한 5조 최상인 사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주장과 개성이 강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 참도 부족하고 예민해 지다 보니 서로 불만이 쌓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 잘 풀어나간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공채2기 중 나이가 제일 많아 피해의식도 좀 있었는데, 모두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모의경영 프로젝트 발표에서 3등은 (주)원익큐브를 발표한 5조, 2등은 (주)테라세미콘을 맡은 3

조, 1등은 (주)원익큐엔씨에 대해 발표한 1조가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심사를 맡았던 (주)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는 “여러분들의 발표를 보면서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주어진 시간도 짧았고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놀라운 면을 많이 보았다”며 “앞으로 원익이 더욱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35명의 신입사원들이 만들어낸 멋진 공연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원익의 핵심인재로 성장 하길”





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입문교육이 끝나면 뽀뽀이 흩어져 각 계열사로 배치돼 근무하겠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자주 연락하고 모임도 갖는 등 오랫동안 함께하는 공채2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중간에 낙오자 없이 35명의 공채2기 사원들 모두 원익의 핵심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한편 이날 모의경영 프로젝트에 이어 신입사원들은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입사원 35명 모두가 함께한 이번 공연은 뮤지컬 전문강사진의 도움 아래 신입사원들이 직접 노래 가사와 대사를 쓰고 합숙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습해 완성한 공연으로, 전문 배우 못지 않은 연기와 노래, 안무 실력을 뽐내며 한 편의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냈다.

끝으로 공채2기 기장 이보라 사원은 “모든 사원들이 한 파트 이상 맡아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 연습하는 내내 공채2기의 뜨거운 열정



64



Special Edition

새해소망, 새해계획



70

Zoom in

(주)테라세미콘 '한마음 명랑운동회'

원익인의 자부심으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가 슝 벅 찬

행 복



74

What is MUJI?

Craft Desk Note
再生紙クラフトデスクノート

Never Ending Challenge

무인양품

새해소망 새해계획



(주)원익
황지현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길을 걷다가 광고문구를 마주하였습니다. '두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 이 문구는 마음속으로 2015년 365일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했나 반성하게 했고,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따뜻함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하루라는 시간에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뜻깊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성,파스함 2016년의 소망을 가져다 준 시 전문을 도전적인 일들을 해나가실 원익의 임직원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함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두 번은 없다
서로 다름지라도...

-비스와바 심 보르스카



원익큐엔씨 이창민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익큐엔씨 사원 이창민 인사드립니다.

원익 그룹에 입사하여 공채 교육을 받은 것이 눈앞에 선명하지만, 벌써 2016년 1월의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원익 그룹 공채 2기 입사소식은 어느 새 시간의 지나감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보통은 작심삼일이지만, 2016년, 한 해의 각오를 여러분에게 당당히 밝힘으로써 제 스스로의 다짐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과 다른 자신을 맞이하고자 두 가지 꼭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경영지원팀 소속 재무팀에 결맞은 사원이 되자. 재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필히 갖춰야 하는 부분은 재무관련 역량입니다.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재무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낯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한해는 조직 내에서 업무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 곳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습니다.

둘째, 어떠한 순간에서도 침착하자. ‘운동, 해외여행, 독서’ 등 많은 것이 생각났지만,

제가 정말 하고픈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당황하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완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낯선 순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감정과 언어로 실수를 하기보다, 항상 차분한 태도로 일관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은, 스스로의 가치와 믿음을 위해 연초부터 마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땀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익 그룹과 함께 보람찬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익IPS 서정원

안녕하세요 원익IPS TGS 영업 파트에서 근무 하고 있는 서정원 사원 입니다.

벌써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다짐은 하셨는지요?

저는 2015년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이나 아쉬웠던 점들 위주로 올해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첫째, 한달에 책 1권씩 읽을 것입니다. 자기 계발의 정점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도서를 많이 읽음으로써 올해에는 좀 더 성숙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둘째, 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건강까지 챙기면서 건강한 한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 같습니다. 회사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올 한해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 여행을 계획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새해 계획에 넣을 생각입니다.

원익IPS에서 입사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하면서 지난 2015년을 발판삼아 올해에는 좀 더 발전하는 내 자신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위와 같은 세가지 계획을 세워 보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저와는 다르겠지만 올 한해 멋진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 묵묵히 최선을 다하셔서 2016년에는 모두 행복하고 목표하신 것 이루시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홍선희

내게 찾아온 2016년 한 해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회사의 배려로 1년간의 긴 육아휴직을 끝내고 워킹맘 대열에 합류한지 어느덧 세 달째가 되어갑니다. 쉽 없이 달려온 직장 생활을 육아휴직을 통해 잠시 쉼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돌아갈 나의 직장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무거운 마음이 아닌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아이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직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휴직을 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 준 회사의 배려에 보답하고, 저의 발전을 위해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네 곁에 있다! 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해 독일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나지는 않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저의 집 기둥인 신랑이 하는 사업이 번창해서 신랑이 그리는 사업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

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2016년 한 해도 아무런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여유와 주위사람들 모두가 아픈 일이나 슬픈 일 없이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김영민

안녕하십니까, 현재 원익 머트리얼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조팀 김영민 직원입니다. 2015년 1월에 입사하여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러 2016년 새해 소망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처음 입사하여 회사에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신입사원이 되자는 큰 뜻을 품었지만 현실은 실수투성이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여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는 작은 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생으로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1년 동안 회사생활을 한 결과 조금은 회사원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2015년 목표가 적응이었다고 한다면, 2016년 저의 목표는 공부입니다. 4년의 대학생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업무 나의 분야에 대하여 깊이 공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는 보탬이 되고, 앞으로 들어올 신입에게는 모범이 되어 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원익의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권효원

항상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세웠었던 목표를 되돌아보게 된다. 항상 목표는 세우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항상 잊어버리고 지냈던 거 같다. 그래서 올 해는 일찌감치 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첫 번째 소망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딸과, 올 4월에 첫 돌을 맞이하게 될 아들이다. 그 동안은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왔지만, 이제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지도하는 아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 소망은, 나의 발전! 이제 환경안전업무도 벌써 9년차에 접어들었다. 직장인으로서 꽃을 피울 시기에 내가 꿈꿔왔던 산업안전지도사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자격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인정받기를 원하기 전에 그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소망은, 살 빼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만 해도 70kg에 불과했던 내 체중이 어느새 90kg에 가까워진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ㅜㅜ



(주)원익머트리얼즈
김민식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다. 꼭 이루리!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소박한 3가
지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들도 소중한 목표를 이루
어 나가는 즐거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새해가 밝은지 벌써 3주가 지
나 2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
년을 돌아보면 원익머트리얼즈라는 좋은
회사와 인연을 맺은 것과 같은 즐거운 일
도 많았고, 힘들고 안타까웠던 일도 많았
습니다. 앞으로 2016년은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라면서 새해 소망을 적어봅니다.
올해 소망으로는 첫번째, 건강입니다. 학
생시절부터 타지에 나와 혼자 생활 하다
보니 아플 때가 가장 서럽고 힘든 일이었
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가족, 동료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두번째, 매출 2000억 달성입니다. 지난 해,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공채 2기 신입사원
들에게 본받을만한 선배 사원이라고 인정



(주)신원종합개발
서예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지난 해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은 밝은 해가 되길 희망합
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익가족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저만의 금년 소망 키워드를
“행복”으로 정했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생
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
태’ 라고 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입사 1년! 성년의 날! 졸업! 등 의미 있는
날이 많은 해였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갖
고 생활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은 제 자신이 정말 행복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저의 소망
입니다. 올해는 혼자 여행, 어머니와 여행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보고자 합
니다. 소중한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는 상
상만으로도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여행을 통해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
표 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발전 시켜 변화하는 것
이 저의 두 번째 목표 입니다.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욕심은 크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욕심을 채우며 보람을 느끼는 한 해를 만들고자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 공부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영어공부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고 나의 발전에 투자한다면 큰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족의 건강 입니다. 작년에는 집안이 종합병원 신세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 건강해야 어떤 일든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해는 가족이 아프지 않도록 가족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고 함께 운동도 하는 시간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저의 소망과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저의 빛나는 2016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닉스
김진열

2016년은 이제 내가 성장하여 40대 중반에 진입 하는 시기이다. 나로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의 시기로 생각 된다.. 그

래서 더욱 더 내 인생에 좋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점점 건강에 대해 중요성이 실감되어 진다. 나의 건강도 중요 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내 주위 지인과 회사 동료들의 건강도 중요 하다. 모두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와 같은 나이에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 인 것 같다. 열심히 일하고 또 있을 수도 있는 스트레스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인생에 재미있는 것을 최소한 1가지는 만들었으면 한다. 나는 스노우 보드를 좋아한다. 올해에는 롱보드를 즐겨볼 생각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레저 스포츠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한다.

나는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는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핑계이겠지만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 같다. 요즘의 키워드는 Healing 인데.. 올해는 책을 읽으면서 Healing 을 하고 싶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영업목표를 달성하였다. 금년에도 국내외 business 환경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여러 어려움을 뚫고 올해 우리 회사가 더욱 더 한발 더 진보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회사가 점점 더 성장 하였으면 한다. 금년 영업 목표도 달성 하여 2016년 연말에 다들 수고 했다고 등 두드리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금년에도 위닉스 화이팅!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즐기며 ‘소통’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주)테라세미콘 임직원 모두가 함께한 ‘2015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그야말로 (주)테라세미콘의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함께 소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지난 2015년 11월6일 오후 1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청려수련원에서 ‘2015 (주)테라세미콘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개최됐다. (주)테라세미콘의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현장에는 (주)테라세미콘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2015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우리’, ‘함께’, ‘소통’, ‘행복’ 등 총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각 팀은 체육부장을 선발하고, 댄스경연을 펼치는 등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외부에서 전문 MC와 치어리더를 섭외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자랐다. 신나는 몸풀이



체조는 물론, 각 팀의 치어리더와 함께 팀원들이 퍼포먼스를 직접 기획해 벌인 화합의 응원 공연, '팀 별 응원전'은 각 팀이 얼마나 소통과 단합이 잘 되는지를 보여주며 초반부터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기도.

열렬한 응원전에 이어 본 게임에서는 팀 단체 경

기인 '파도타기', '지구공 나르기' 등이 진행되었으며, 각 팀에 속한 임원진들의 노련함이 돋보였다. 특히 '우리' 팀에 속한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역시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는 "바쁜 업무로



인해 여유를 누리기 보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근무할 때와는 표정이 다르다. ‘명랑운동회’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열정의 (주)테라세미콘, 치열한 경합 ‘눈길’

이날 명랑운동회에서는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네 팀이 모두 함께 2개의 공을 가지고 펼

치는 사방피구, 지네발 릴레이, 바구니 물풍선 받기, 신발 멀리날리기 대회 등 어떤 경기 하나 빠짐없이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경기에 임하거나 응원을 펼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하늘이 시샘이라도 하듯 중간중간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였지만, 매 경기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테라세미콘의 직원들은 쌀쌀함을 느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명랑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릴레이 계주’에서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쳤고, 또한 이날 (주)테라세미콘의 ‘2015 한마음 명랑운동회’에 분위기를 주도하며 직원들과 함께한 치어리더 ‘그레이트’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공연을 선보이며 ‘명랑운동회’의 마





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 행복을 위한 자리인 만큼 이날 ‘2015 한마음 명랑운동회’에는 다양한 경품과 먹거리도 준비돼 즐거움을 더했다. 통 큰 희식비는 물론, 경기 중간중간 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차량용 청소기, 갤럭시기어S2 등의 경품 등이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적극적인 직원들의 모습, (주)테라세미콘의 미래”

이날 (주)테라세미콘 신현보 상무는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모처럼 직원들과 즐거

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저 역시 경기에 참여해 열심히 뛰었고, 우승도 하게 돼 기쁘다”며 “바쁜 업무로 인해 모두 함께 이런 시간을 즐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운동회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제조1파트 오승진 대리 역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굿은 날씨가 아쉽긴 했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다. 특히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아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끝으로 이재경 대표이사는 “1년에 두 번, 산행과 운동회를 통해 (주)테라세미콘의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떤 행사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테라세미콘의 조직문화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앞으로도 (주)테라세미콘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큰 역할을 할거라 기대한다. 오늘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 윤보라 • 사진 김두중



미리 준비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면 무한의 가능성이 보인다.

‘쿡방’ 가고 ‘집방’ 온다 전해라~

지난 2015년이 저물어가는 12월, tvN의 '내 방의 품격', JTBC의 '현집줄게 새집다오' 등의 이른바 '집방 예능'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프로그램이 연이어 전파를 탔다. 인테리어 전문가와 일반인 고수들이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인테리어 노하우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2015년 대세였던 먹방, 쿡방의 뒤를 이을 2016년의 방송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What is MUJI?

Cleaning System
掃除用品システム

이렇게 집방이 차세대 대세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셀프 인테리어족'들을 빼놓을 수 없다. 집을 사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대신 소품이나 소형 가구 등 적은 비용으로 실용성 있고 개성 있는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어하면서 생겨난 '셀프 인테리어족'들은 최근 1, 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What is MUJI?

Aroma Diffuser
超音波アロマディフューザー

라이프 스타일샵 무인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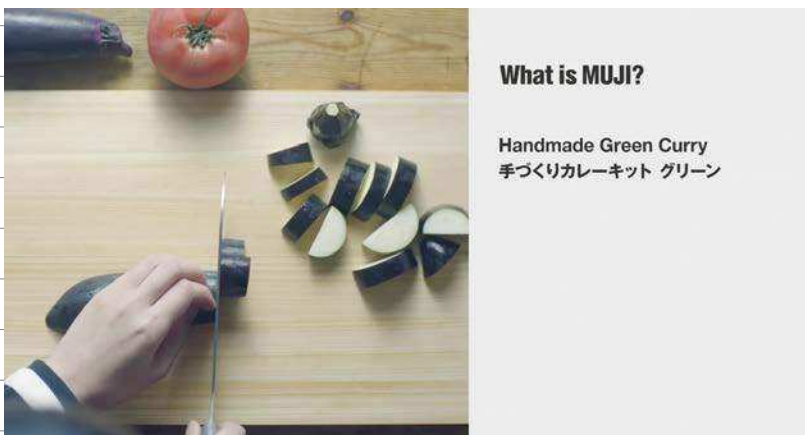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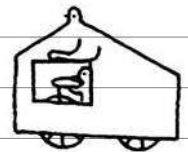
라이프 스타일샵이다. 국내엔 2004년 일본 양품계획 60%, 롯데 쇼핑 40%의 합자회사인 무지코리아를 통해 들어왔으며, 현재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의 매장, 7,000여 개가 넘는 제품을 취급하는 글로벌 홈퍼니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와 SNS 등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고, 라이프 스타일샵이라는 새로운 열풍을 만들어냈다. 그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무인양품이다.

1980년 12월 일본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이유의 프라이빗 브랜드로 시작된 무인양품은 가정용품 9종, 식품 31종 40개 품목이었지만, 1989년 독립하고 무인양품 영업을 양수하면서 급성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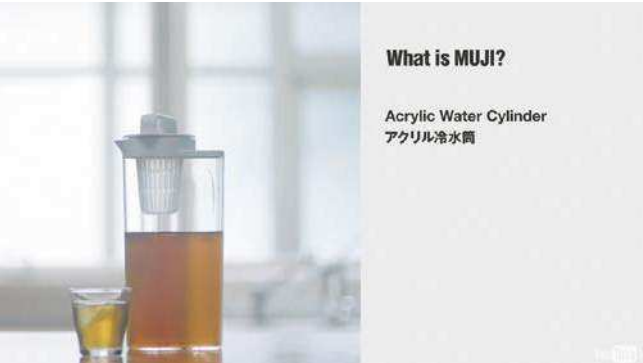


No Brand, 상표가 없는 좋은 물건



무인양품은 브랜드의 이름이 말해주듯 '상표가 없는 좋은 물건'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내세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브랜드로서 이유 있는 가격을 캐치프라이즈로 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개발된 의류, 악세서리, 퍼니처, 패브릭, 가정용품, 문구류, 식품 등에 걸쳐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식주와 관련된 토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무인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이다. 무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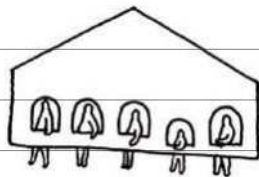
는 “일본문화의 큰 뼈대인 공(空), 즉 여백의 미 의식에 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텅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 단순하면서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그 속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백의 원천으로 지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인양품의 뿌리가 언제나 자연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무인양품의 색이 베이지나 그레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천연소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존재들이 더불어 살며 만들어진 지구의 색이 바로 무인양품의 색인 것이다.

품의 제품은 어디에나 어울린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무인양품의 제품이 '내 취향대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평가한다. '이래서 좋다.'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하며 강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래서 좋다.'라고 고객들에게 이성적인 만족감을 드리는 것이 무인양품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무인양품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유행을 쫓지 않되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전 제품에 일관되게 유지하여 무인양품의 철학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편,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여백의 미'를 살린 '지구의 색'



무인양품의 제품에는 색을 넣지 않고, 염색도 하지 않는다. 제품 어느 곳을 봐도 로고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채색의 배경에 단순한 형태인 무인양품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고문위원 하라 켄야



What is MUJI?

Right Angle Socks
足なり直角靴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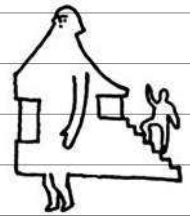


What is MUJI?

Organic Cotton Oxford Shirt
オーガニックコットン
オックスフォードシャツ

이러한 세 가지 방침은 시대의 미 의식에 잘 맞는 심플하고 아름다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인 동시에, 무인양품이 오랜 기간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평가 받고 있다.

무인양품의 미래



변치 않는 세 가지 기본 원칙



무인양품은 생활의 기본이 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내기 위해 소재의 선택, 공정의 점검, 포장의 간략화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무인양품은 좋은 상품이 지닌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성장과 발전에 도전하며, 고객과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신뢰와 존중을 통해 무인양품만의 세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무인양품은 말한다.

“미리 준비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면 무한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글 윤보라 • 사진출처 무인양품 홈페이지

소재의 선택 - 합리적인 가격의 질 좋은 소재로 상품을 만든다.

공정의 점검 - 철저한 프로세스 아래 필요한 공정만을 살려 소재를 낭비하지 않고 실질 본위의 상품을 만든다.

포장의 간략화 - 포장하지 않은 상품 본래의 색상이나 모양 그대로를 존중한 간소한 포장으로 심플함을 만드는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인다.



What is MUJI?

Cloth My Bag
布製マイバッグ

Travel

[제주 맛집 여행]

色다른 제주 맛집

최근 예상치 못한 32년 만의 폭설을 기록한 제주. 2~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여행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 중 하나가 바로 '맛집'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맛있는 음식이 여행의 목적이 되는 '맛집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곧 다가올 설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는 항공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겨울은 부담 없이 '제주 맛집 여행'을 떠나기 좋은 최적기다.

한 가지 더! '제주 맛집 여행'이라고 해서 꼭 흑돼지 구이에 한라산 소주, 갈치조림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제주 스텝지만, 제주 같지 않은' 제주 맛집들을 소개한다.



후거키친



제주 애월의 한가한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후거키친'은 덴마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다. '후거'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며 보내는 안락하고 아늑한 모든 상태'라는 말로, 덴마크 특유의 휴식 문화를 뜻한다. 이곳에서는 포테이토 연어 케이크, 데니시 미트볼 등 덴마크 전통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 또한 제주 한우로 만든 카르파치오, 제주 마늘로 만든 버터로 구운 새우, 제주 돌문어를 넣고 튀긴 롤 등 제주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길 66

TEL 064-712-7120



두봄





두봄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수제 햄버거 전문점이다. 특이사항은 수제 햄버거에 양파가 빠졌다는 점이다. 친환경 양파가 작아서 햄버거에 넣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두봄은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농산물로만 만든 수제 햄버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두봄은 고기 패티 대신 두부와 감자, 치즈만 넣은 두봄 버거, 콩 패티를 넣은 콩버거가 유명하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남로 123

TEL 064-792-4222



미엘 드 세화



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세화 해변에 위치한 '미엘 드 세화'를 찾아가보자. 직접 만든 당근 케이크와 망고 케이크가 유명한데,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이곳의 케이크를 홀 케이크로 맛보고 싶다면, 최소 3일 전 예약은 필수다. 특히 '미엘 드 세화'의 '미엘'은 프랑스어로 '꿀'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는 에스프레소 2샷에 꿀을 더하고 생크림을 올린 '미엘커피'를 맛볼 수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64

TEL 064-782-6070



라포레스려니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인 부부가 손수 꾸민 프로방스풍의 멋진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이 곳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알프스 지방 명물 치즈 요리 '라클렛'과 따뜻한 샌드위치 크로크무슈, 파

이와 라자냐, 치즈 풍두, 코코뱅 등 프랑스식 가정식이 주메뉴다. 또 제주 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을 넣은 샐러드, 칠리콘 카네빠네 등도 인기 메뉴다.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85-3

TEL 064-784-9507



샐러드 앤 미미



이탈리아 요리와 건강한 샐러드를 제공하는 '샐러드 앤 미미'는 청담동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제주 세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중 한경면 굴밭에 위치한 곳이 본점인데,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샐러드가 주요 메뉴다. 푸짐한 샐러드를 비롯해 국내산 잡곡을 넣은 피타 브레드, 제주 고사리를 넣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흑돼지 샐러드 피자, 매콤한 딱새우 요리가 인기 메뉴다.

[본점] 제주시 한경면 연영로 260

TEL 064-799-9941

Economy

[2016년 달라지는 제도]

2016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국민행복'을 목표로 고용과 노동, 복지, 가족, 여성 분야 등에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됐다. 201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진 정책 및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을 줄이면 연 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급된다.

새해 경제 화두는 국민행복

최저임금 인상

201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인상액은 역대 최고치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정년제와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새해부터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전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또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중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액이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암 검진주기 단축

간암 고위험군 40세 이상의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건강검진 대상자는 연 2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면서 기존의 전액본인부담에서 전액국가지원으로 전환돼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개선된다. 본인 부담률이 컸던 선택진료의 경우 67%에서 33%로 축소될 예정이며,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부터는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기관 3회차 방문부터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금연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할 경우 본인부담금

100% 환급 및 건강관리 축하선물도 추가로 지급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한약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루약 형태의 한약만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찌꺼기는 형태의 약과 알약에도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연간 최대 2천만원, 5년 총 1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의 250만원(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ISA에 포함된 예금과 적금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1:1 노후대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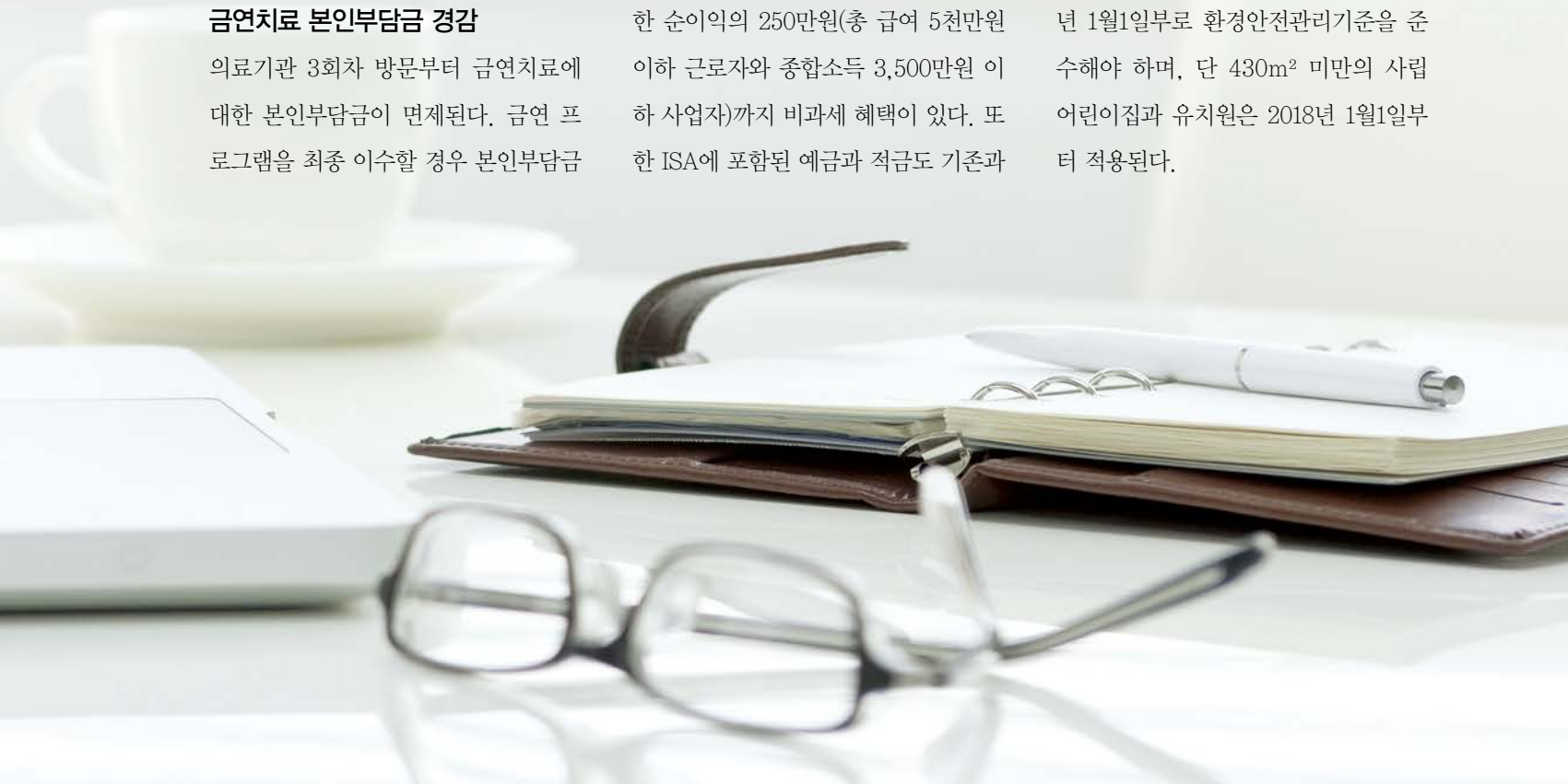
정부는 개인 상황에 맞게 노후대비 상담을 해주는 1:1 노후준비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이와 수입 등을 고려해 노후 대비 재무 계획을 세워주고, 취미활동과 자원봉사 정보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은 2016년 1월1일부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단 430m²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Trend

[2016년 소비 트렌드]

2016년 소비 트렌드 가성비 & 셀프

2016년 새해 소비 트렌드는 '가성비'와 '셀프'가 대세다. 물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고가의 유명 브랜드의 인기를 무시하진 못하겠지만, 올해는 유명 브랜드 못지 않게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연초부터 품질 사태가 빚어지는 등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새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자기계발'을 위한 소비가 늘어나는 데, 올해는 '셀프 자기계발'이 주목받고 있다.



‘가성비 열풍’

요즘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PB상품이 대세다. 가성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



고 있었던 PB상품은 이제 ‘대박’ 상품이 되었다.

이마트의 경우 브랜드명을 없애고 포장을 단순화 시킨 ‘노브랜드’ 상품이 인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노브랜드’가 곧 ‘브랜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SNS상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초콜렛이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PB상품을 앞세운 편의점 역시 가성비 트렌드에 한 몫 하고 있다. 편의점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

매하고 있는 도시락은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상품이다. 가격은 식당에서 먹는 한 끼 식사 가격의 절반 가량인 3,000~4,000원대를 유지하면서 맛과 가짓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김혜자, 백종원 등 유명인을 앞세운 홍보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맛과 품질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고품질의 원두커피를 1천원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커피를 론칭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업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자주 언급되는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 역시 최근 포장을 단순화 하고 가격에 거품을 뺀 상품들의 판매가 높아지고 있다. 이니스프리가 출시한 ‘슈퍼푸드 프롬 제주’ 라인은 5,000~9,500원의 가격으로 클렌저와 스킨, 로션, 크림 등의 제품을 내놓으며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고, 더페이스샵의 ‘블랙라벨 립스틱’ 역시 4,900원의 가격으로 뛰어난 발색력과 색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의 경우 PB상품인 화장 소품의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rend

[2016년 소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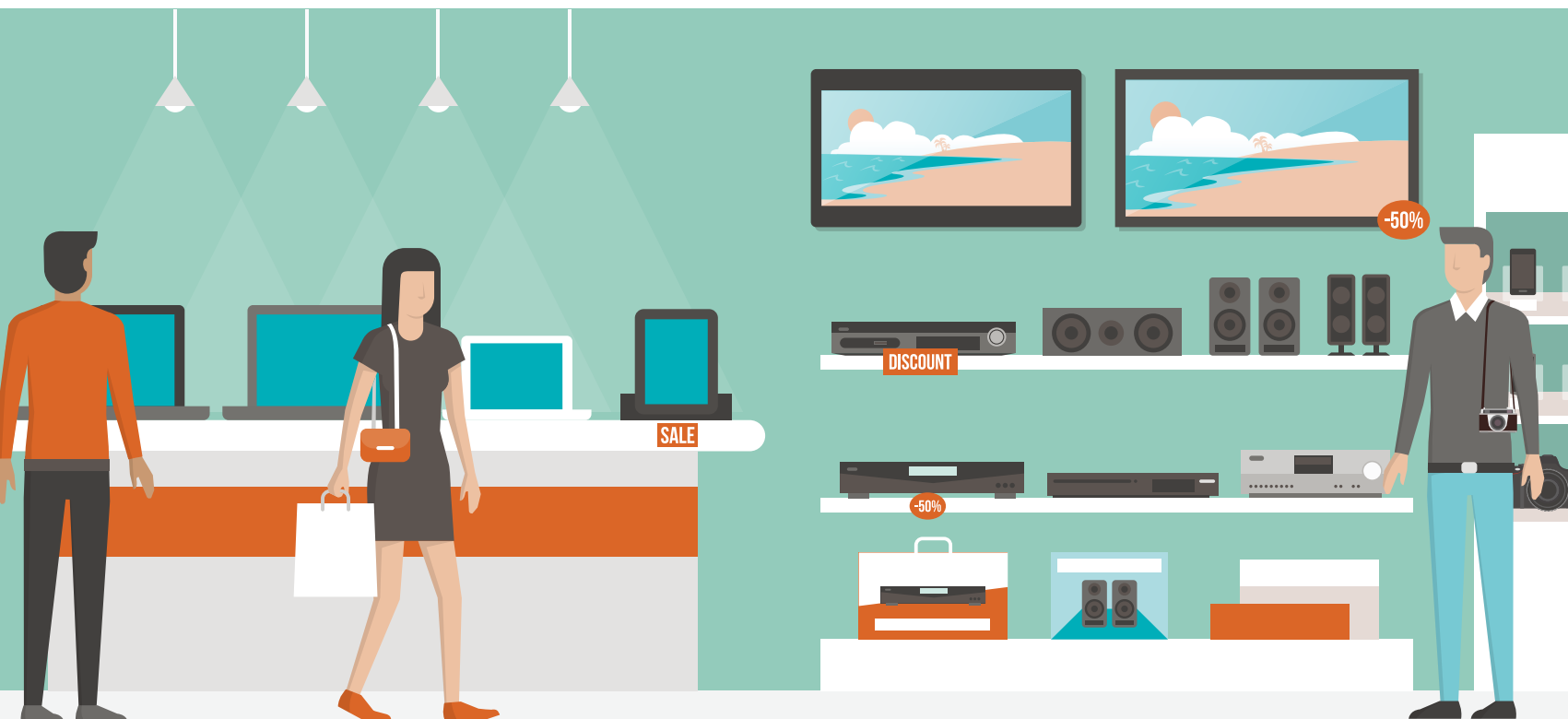
‘셀프’가 ‘대세’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의 목표’를 세운다. ‘다이어트’, ‘운동’, ‘금연’, ‘어학공부’ 등. 소셜커머스 티몬은 새해를 맞아 운동과 학습 결심을

돕는 상품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셀프 자기계발 상품’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요가나 필라테스 등 학원 강습 이용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10% 남짓 증가한 반면, 운동기구 관련 매출은 51%가 증가했다.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이 많이 소개됨에 따라 거창한 운동기구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의 매출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이 오른 대표적인 상품들로는 요가매트와 짐볼, 아령, 푸쉬업바, 스텝퍼 등이다. 또한 어학 교육 상품도 매출이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피킹맥스’, ‘해커스’, ‘야나두’, ‘로제타스톤’ 등 유명 외국어 학습 업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홈쇼핑 히트상품으로 이름을 올린 온라인 영어회화 ‘시원스쿨’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새해 결심 상품 외에도 ‘셀프 인테리어’, ‘셀프 웨딩’ 등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과 행복을 얻는 ‘셀프’ 시대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원익사보 2016년 신년호 원익인 통권 45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10.4742.2088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원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 고건호
이기복

원익큐엔씨 도현수
이민희

신원종합개발(주) 현승훈
한영석

원익아이피에스 권기용
차유리

원익머트리얼즈 권봉진
신희숙

위닉스 안희태

테라세미콘 최낙준
방주현

원익큐브 진종언
윤세련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윤용인

씨엠에스랩 오상열
박지현

원익엘앤디(주) 김기현
조만현

기획조정실 김동철
서재원

REPAIRA
BY CELL FUSION C

시간과 나이를 거스르는 아름다움
당신을 위한 원더에이징

Wonder-Aging

리페라 볼록 리프팅 앰플
VOL-LOCK LIFTING AMPOULE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볼륨을 채워주는 Volume Locking
볼륨 10 point 집중 케어로 완벽한 3D 윤곽케어
특히 받은 동안 성분의 리프팅 & 탄력
13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된 원더에이징 효과

